

■ 광주·전남 소속 선수들 '메달 투혼'

■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 역대 '銀'...광주은행 이 정 재

팀에 첫 메달 소식

이정재(광주은행)가 도하아시안게임 남자 역도에서 첫 은메달을 땀다.

이정재는 5일 도하 알-다나 뱅퀴트홀에서 열린 남자 역도 77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91kg 합계 341kg을 들어올려 중국의 리홍리(합계 361kg)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한국 역도 남녀 대표팀에 첫 은메달을 선사한 주인공이 됐다.

인상 3차 시기에서 150kg으로 4위에 그친 이정재는 용상 2차 시기에서 191kg을 들어 이라크 알리 하렘과 합계가 같은 중량인 341kg을 기록했으나 몸무게가 76.87kg으로 알리보다 0.11kg 덜 나가 2위에 올랐다. 이정재는 용상 3차 시기에서 200kg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김미경(경기체육회)은 여자 69kg급에 출전 인상 93kg 용상 130kg 합계 223kg을 성공하며 중국 리우하이시아(합계 265kg), 미얀마 판아르 데트(합계 235kg)에 이어 3위를 차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정재가 5일 도하 알-다나 뱅퀴트홀에서 열린 남자 역도 77kg급에서 은빛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수영 '銅'...전남제일고 이지은

이젠 올림픽 목표



5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수영 여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이지은(17·전남제일고)은 물에서 빠져나와 공동취재구역을 지나칠 때 수영 모자를 벗지 않았다. 시상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지은은 하얀 바탕에 태극마크가 뚜렷한 수영모자를 그대로 쓰고 시상대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유는 탈모증 때문이다.

7살 때부터 원형탈모증을 앓던 이지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몸의 털이 빠져 병원에 갔더니 전신탈모증으로 발전했다는 '청천벽력'같은 판정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없으니 항상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가 찾아오자 탈모증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지만 물 속에서만은 누구보다 빠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겨냈고, 마침내 2004년 10월 처음 태극마크를 단 뒤 지난 해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게임 여자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지은은 경기를 마치고 공동취재구역을 지날 때만해도 환한 표정으로 "기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시상식 때만은 힘들게 이겨낸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는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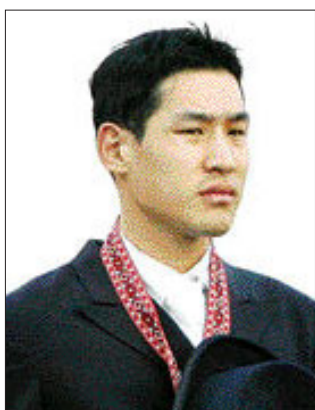
전신탈모증은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도핑테스트에서 걸릴까 봐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는 이지은. 2년 동안 성장해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승마 '金'...광주시체육회 최준상

대회 2연패 전인

지난 4일 오후 카타르 도하 승마클럽에서 열린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준상(광주시 체육회·삼성전자승마단·사진)은 신수진·서정균·김동선(캘리포니아 승마단)과 함께 출전, 평균점수 65.777%를 획득, 말레시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초등학교 3학년때 승마에 입문한 최준상은 광주 무진중 1학년때 영국 유학길에 올라 '정통 승마교육'을 받은 '승마 엘리트'



다. 지난 2003년~2006년까지 전국체육대회 승마종목 마장마술에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해 국내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 게임 승마 마장마술 개인,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으며 단체전에서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도 그랜드슬램' 이뤘다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 이어 아시안게임 석권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5·KRA)가 한국 유도사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똑똑히 남기게 됐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시원한 '한판 퍼레이드'로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던 이원희는 5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 유도장에서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73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유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유도 그랜드슬램'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공식 타이틀은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이루기 힘든 위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이원희는 이날 부상 중인 무릎과 발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정상에 다시 우뚝 서며 대스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해보였다.

하형주, 김재업, 전기영 등 일반 팬들에게 낯익은 이름들도 헤내지 못한 유도 그랜드슬램을 이룬 이원희지만 아테네 올림픽 우승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진에 빠져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이 같은 체급에서 라이벌로 급부상한 김재범(21·용인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 대표선발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1,2차 선발전에서 모두 김재범에게 저 태극마크를 달기조차 쉽지 않았으나, 가장 배점이 높은 마지막 3차 선발전에서 김재범을 꺾으며 극적으로 도하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서울 흥릉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한 이원희는 이후 보성중, 고교와 용인대를 거쳐 현재 KRA 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2003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2004년 올림픽을 우승한 뒤 잡시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이번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제 2의 전성기'를 열게 됐다. 이제 남은 목표는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 유도 사상 최초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자로 기록에 남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5일 새벽 (한국시간) 도하 카타르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73kg급 결승에서 이원희(25·KRA)가 다카마쓰 마사히로(일본)를 한판으로 누르고 있다. 이원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유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사격 손혜경 2관왕 탕! 탕!

■ 오늘의 주요 경기

유도·정구·승마도 '금' '2위 탈환' 본격 시동

'불굴의 여사수' 손혜경(30·국민은행)이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사격에서 에타게 가다리던 황금빛 총성을 울렸다.

손혜경은 5일 열린 여자 더블트랩 본선에서 3라운드 합계 105점을 쏘아 태국의 스리송크람 자네지라(103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손혜경과 이보나(우리은행), 김미진(울산체육회)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수들은 더블트랩 단체전에서도 합계 303점으로 중국(288점)을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동안 격발 도중 파열을 눈에 맞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지긋지긋했던 부상을 떨쳐내고 대회에 참가한 손혜경은 이로써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르는 대기록도 세우게 됐다.

이원희도 이날 유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일본의 다카마쓰 마사히로를 빗대겨치기 한판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구에서는 김지은-위후환 조가 혼합복

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얻었다. 승마에선 최준상, 신수진, 서정균, 김동선이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평균 점수 65.777%를 획득, 대회 3연패를 이룩했다.

또 여자볼링 2인조 결선에서는 최진아-김여진 조가 합계 2천620점으로 2위에 올랐다. 아쿠아틱 수영장에서 의미있는 한국기록들이 쏟아졌다. 최혜라는 여자 접영 200m 결선에서 한국 기록을 0.68초 단축한 2분09초64를 기록하며 2위로 골인했다.

박태환, 임남균, 강용환, 한규철(전남수영연맹) 등 자유형 남자 800m계영조는 한국 기록을 2.00초 줄인 7분23초61로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선 이지은(전남제일고)이 4분14초95의 한국신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역도의 남자 77kg급에 참가한 이정재(광주은행)는 합계 341kg을 들어올려 은메달을 땀다. 하지만 기대했던 한국여자농구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복병' 대만에 73-80으로 일격을 당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 5, 은 4, 동메달 8개를 추가한 한국은 중간합계 금 9, 은 12, 동메달 22개로, 2위 일본(금 12, 은 15, 동 19)을 추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배드민턴
 - △남자 단식 32강 등(15시)
- ▲야구
 - △한국-중국(19시30분)
- ▲복싱
 - △남자 69kg 이하 웰터급 등(20시)
- ▲당구
 - △남자 스누커 단식(16시)
- ▲사이클
 - △남자 단체 팀 트라이얼(18시30분)
- ▲승마
 - △마장마술 개인 및 단체전 등(15시)
- ▲체조
 - △남자 마루 결승(22시)
- ▲하키
 - △여자 한국-중국(20시)
- ▲조정
 - △남자 중량급 더블스컬 결승 등(16시)
- ▲요트
 - △남자 420급(17시)
- ▲세팍타크로
 - △여자 결승 등(18시)
- ▲사격
 - △남자 25m 속사권총 등(14시)
- ▲정구
 - △여자 단식 준결승 등(15시)
- ▲수영
 - △여자 100m 자유형 등(16시)